불교 콘텐츠 강화…새로워지는 國搏



국보 제78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

반가사유상 2점 브랜드화
전용 공간 마련 상설 전시

국립중앙박물관 올해 어떻게 바뀌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이 불교문화 콘텐츠를 강화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다. 이 같은 변화는 2월 3일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신년 기자간담회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민병찬 관장은 국보 제78 · 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 2점의 전용 전시 공간 조성을 올해 첫 번째 중점 사업으로 제시했다.

한자리서 만나는 반가사유상

민 관장은 국보 제78 · 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을 국립중앙박물관의 소장 문화재를 대표하는 문화재라고 꼽았다.

민 관장은 "현전하는 반가사유상 70여 점 중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게 한국과 일본에 있는 4점이다. 그중 3점을 우리 선조가 조성했다"면서 "반가사유상의 기원은 중국에 있지만, 문화 · 역사 · 신앙적으로 한반도에서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외국 박물관 미술관 큐레이터들이 반가사유상을 최고로 생각한다"는 민 관장의 말처럼 실제 반가사유상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장 사랑받는 문화재로 손꼽힌다. 국보 제78호 반가사유상은 7회, 제83호 반가사유상은 9회 국외 전시가 이뤄진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현재 반가사유상은 국립중앙박물관 3층 불교조각실에 마련된 전시 공간에 있지만, 외진 곳에 있어서 쉽게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현재 반가사유상의 전시 공간을 2층 기증관 입구로 이동해 오는 10월까지 약 440㎡ 규모의 전용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시 공간은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반가사유상을 '국립박물관 브랜드 문화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민 관장은 "올 10월부터 관람객들은 새로운 공간에서 2점의 반가사유상을 마주하며 과거에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그리는 사색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움직이는 괘불 · 승장 조명

국립중앙박물관에 선보이는 불교문화 콘텐츠 중 당장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월부터 공개된 초대형 미디어 아트 괘불탱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불교회화실의 괘불 전시 공간에서 만나볼 수 있는 괘불탱 미디어 아트는 실제 괘불이 소개되지 않는 기간 동안 상영된다.

기존 불교회화실 휴게공간에는 실제 과거에 존재했던 고승과 현재 관람객이 영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실시간 인식 센서로 관람객이 다가오면 화면 속 고승 진영이 반응하며 관람객에게 대화를 건네고, 영상 속 고승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진귀한 풍경이 펼쳐진다.

고승 진영 영상은 서산대사 휴정과 불화승 신겸 스님의 진영 2점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계획 중인 특별전도 주목할 만 하다. 특히 한국 불교회화, 조각 등을 주도했던 승려 장인, '승장(僧匠)'들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올해 12월 7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진행된다. 승려 장인을 주제로 국립박물관에서 특별전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전소된 사찰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많은 불화승, 조각승들이 역사에 기록을 남겼지만, 이를 제대로 조명하지 못했다. 작품 뒤에 봉인돼 잊혔던 당시 승장 그룹들을 조명해 조선시대 불교미술을 폭 넓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립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불교조각과 회화에는 집중하지만 조각승이나 불화승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면서 "불교 예술이 탄생하는 사찰 공간에 대해 문화사적 관점으로 살펴 조선시대 불교미술을 폭넓게 이해하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교회화실에 새로 마련된 불교 콘텐츠. 사진 왼쪽은 3층서 바라본 미디어 아트 괘불탱, 사진 오른쪽은 고승 진영 영상.



국보 제83호 금동미륵반가사유상

괘불 초대형 미디어아트
연말 僧匠 특별전 '기대'

한문 불전 전문가 되고 싶다면…

동국대 불교한문아카데미 1학기 연수생 모집

대면 · 비대면접수 전형 가능
심화 · 기본과정… 19일까지

불교 한문불전 역경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동국대 불교한문아카데미가 1학기 연수생을 모집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자광) 불교한문아카데미는 "오는 2월 19일까지 2021년도 1학기 '심화과정'과 '기본과정'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2월 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면접전형과 필기고사(심화과정)는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형일은 2월 20일이며,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합격자는 개별 통보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한문아카데미는 지난 2012년부터 조계종 교육원과 협력해 운영하는 불교한문 교육기관으로 한문불전 역경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번역의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기본과정'과 역경전문가를 배출하는 '심화과정'으로 구성돼 매학기 15주 동안 강좌를 진행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과목씩 5강좌가 운영되며 10강좌(30학점) 이상 이수하면 수료할 수 있다. 일반수강생은 기본과정에 한하며,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원서를 제출하면 등록과 개별 수강이 가능하다.

기본과정 선발연수생은 불교 및 한문불전 공부에 관심이 있는 4년제 대학 재학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심화과정 선발연수생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이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원은 각각 30명과 15명이다.

이번 학기부터 심화과정은 필기시험 과목이 〈대승기신론〉 〈현정론〉 〈도서〉에서 규봉 종밀의 〈원각경대소석의초〉 권 제1로 바뀌었다. 출제위원들은 "응시자마다 다른 문제를 출제할 계획"이라며 "심화과정 입학을 원하는 응시자라면 사전에 심도 있는 학습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불교한문 전문가를 양성하는 만큼 불교한문아카데미 수강시 특전도 있다. 조계종 스님의 경우 수강료가 면제되며, 선발연수생 과정을 수료할 경우 승가고시에서 2년의 교육경력을 인정받는다. 성적우수자들에게는 소정의 장학금도 지급된다.

신성민 기자

'대각교 의식'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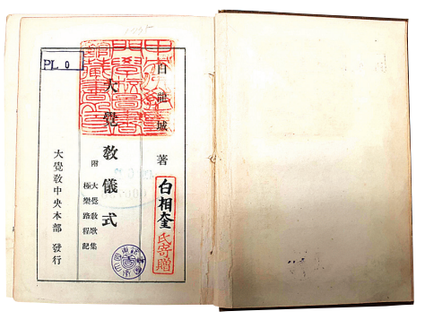
문화재청 3일 등록 고시

불교 근대 유산인 '대각교 의식'이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일제강점기 불교 관련 서적인 '대각교 의식(大覺敎儀式)'은 문화재로 등록하고, 한국어 수어교재 〈수화〉와 '고성 구간성기선점 반석', '연세대 언더우드가기념관'은 문화재로 등록예고한다"고 2월 3일 밝혔다.

국가등록문화재 제803호로 지정된 '대각교 의식'은 3 · 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던 백용성(白龍城, 1864~1940) 스님이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대각교'를 창립하고 저술한 서적이다.

'대각교 의식'은 일제강점기 불교계에서 행해지던 복잡한 각종 의식(예불 · 향례 · 혼례 · 상례 등)을 실용적으로 간소화하고, 왕생가 · 권세가 등 찬불가 7편을 수록하고 있다.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대각교 의식'

문화재청은 "'대각교 의식'은 불교 의식문을 한글로 보급해 일제강점기 불교의 대중화와 개혁을 꾀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한 점에서 역사 ·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문서번호 (2021-01-18)

공 고

(분환신청 / 승려증갱신)

삼보에 귀의 하옵고
대한불교 원효종은 오랜 기간 동안 종권 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와해로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 되었는바, 이런 역경을 딛고 대한불교 원효종에 전통성을 되찾고 원효성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신심을 내어 주신 스님들의 원력으로(2017카합10083대한불교원효종종정직무대행, 2019비합3003, 대한불교원효종임시종정결정, 대구고등법원2020라388임시종정선임결정), 2021년 1월 12일자로 이종윤(원호)스님을 대한불교원효종임시종정으로 결정함에 따라 종단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종단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김윤철(향운), 손영채(우석)스님들의 위촉, 임명 또는 임원, 의원 등 모든 직책은 법적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종무행정의 질서를 재정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갱신업무를 시행하오니 착오 없이 갱신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윤철(향운), 손영채(우석)스님 측의 갱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하지 않으신 스님들께서도 아래 기간에 맞추어 속히 갱신을 완료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기간 내에 갱신발급을 신청을 하지 않은 종도들은 공고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7일

다 음

◉ **갱신범위** : 사암등록증 ·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 승려증
◉ **갱신기간** : **2021년 1월 ~ 4월** (※공고일 부터 3개월)
◉ **주 소** : 경북 경주시 배리2길 34-7
◉ **문 의 처** : 총무원 054)745-3400 / 팩스 054)745-3400 / H.P 010-9388-3883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이종윤(원호)**

21세기에 믿기 힘든 불가사의한 이야기,
성공하고 싶은 지식인들에게 들려주는 영험한 체험기

성제스님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 II·III
148×243㎜ | 찬샘 펴냄 | 값 (각) 13,000원

성제스님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
143×204㎜ | 찬샘 펴냄 | 값 (각) 10,000원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은 법계의 사랑을 받으며 믿을 수없는 기적들을 만들어 내는 것을 증명이나 하듯이 가피 영험담을 1년간 써 내려간 것이 산문집 **불가사의한 가피II·III**와 시집 **불가사의한 가피의 노래 I·II·III**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법계의 불가사의한 가피가 아니고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산문집과 시집이름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부디 코로나로 많이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맑고 청정한 기운을 불어넣어주며, 이 행복에너지가 일파만파의 무한 에너지로 승화되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는 지혜와 복덕이 가득한 가정이되시길 기원합니다.

- 화엄사 **성제스님** 합장

구입문의 : 성제스님 010-7406-9788 새마을금고 9002-1949-5544-0 (예금주 : 주식회사 연당)